

# 일본인 환자의 사상체질에 따른 한방제제 활용에 관한 연구

류동훈 · 渡辺 賢治\* · 전수형 · 김종원

동의대학교 한의과대학 사상체질과  
게이오대학교 의학부 한방의학센터\*

## Abstract

### A Study on the Use of Herbal Extracts according to the Sasang Constitution of Patients in Japan

Dong-Hoon Ryu · Kenji Watanabe\* · Soo-Hyung Jeon · Jong-Won Kim

*Dept.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ongeui Univ.*

*Center for Kampo Medicine, Keio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 Objectives

This study was performed to find out the correlation between the use of herbal extracts and the Sasang constitution of patients in Japan.

#### Methods

We recruited 315 subjects who had been visiting the Center for Kampo Medicine for the treatment, Keio University in Tokyo, Japan. They answered SSCQ-P(Sasang Constitution Questionnaire for Patients) questionnaire, a sasang constitution specialist interviewed them and diagnosed the sasang constitution. And the 80 herbal extracts subject's having taken were classified into four type Sasang constitutional herbal formulas according to 『Donguisusebowon』, the ingredients in a formula that have different role(sovareign, minister, assistant and courie) and effect and indication of formula.

#### Results

1. Among the total 315 subjects, the number of Taeyangin, Soyangin, Taeumin, and Soeumin was 3(1.0%), 85(27.0%), 90(28.6%), and 137(43.5%).
2. Among the 80 herbal extracts subject's having taken, the number of each Soyangin, Taeumin, and Soeumin herbal formulas was 30, 7 and 43.
3. 1 Soyangin and 2 Soeumin herbal formulas were prescribed in 3 Taeyangin subjects group. 29 Soyangin, 4 Taeumin, 52 Soeumin herbal formulas were prescribed in 85 Soyangin subjects group. 39 Soyangin, 6 Taeumin, 45 Soeumin herbal formulas were prescribed in 90 Taeumin subjects group. 51 Soyangin, 6 Taeumin, 80 Soeumin herbal formulas were prescribed in 137 Soeumin subjects group.

#### Conclusions

The Soeumin rate in Japan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at in Korea. There was no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the use of herbal extracts and the Sasang constitution in Japan.

**Key Words:** Sasang Constitution, Distribution, Herbal extract, Correlation, Japan

Received October 23, 2012 Revised November 9, 2012 Accepted November 29, 2012  
Corresponding Author Jong-Won Kim  
Dept.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Ulsan Korean medical hospital of Dongeui university,  
479-7 Sinjeong-dong, Nam-gu, Ulsan, 680-824, Korea  
Tel : +82-52-220-8101 Fax : +82-52-256-0665 E-mail : jwonkim@deu.ac.kr

© The Society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 I. 緒論

東武 李濟馬가 창시한 사상의학은 한의학 고유의 독자적인 체질의학이다. 이제마는 인간을 4가지 체질로 나누어 각 체질별로 다른 생리병리를 제시하였고 기존의 한의학 처방들을 사상의학적으로 해석하였을 뿐 아니라 새로운 체질 처방을 창안하여 활용을 하였다.

지금까지 이제마가 창안한 사상체질 처방 위주의 연구가 주로 이루어지면서 기존의 상한방이나 후세방 등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국내에서의 연구로는 유 등<sup>1</sup>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활용되는 한방보협제체를 체질별로 분류를 하여 사상의학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연구한 바 있고, 외국인 대상의 연구 중에서는 체질진단 연구<sup>2-10</sup>들은 있었으나 그들의 한약 처방 활용에 대한 사상의학적 연구는 없었다. 현재 중국 전통의학에 기반한 한의학적 의료가 행해지는 나라는 한국을 비롯한 중국, 일본, 대만 등<sup>11</sup>이며 본 연구에서는 일본인을 대상으로 사상체질과 처방된 한방제체의 관계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일본에서 활용되는 한방제체 현황은 주로 한방 엑기스 제제로 의료용 한방제체와 일반 한방제체 두 가지가 활용이 된다. 전자는 주로 엑기스 제제로 147종이 지정되어 있고, 후자는 엑기스제체와 생약의 혼합제체·환제·산제 등으로 210종의 처방이 있으며 효능 효과·용법·용량이 통일적으로 규정되어 있다<sup>12</sup>.

본 연구에서는 일본 도쿄시의 게이오대학교 의학부 한방의학센터를 방문한 환자들에게 활용된 한방 한약제체를 사상의학적으로 분석하고 환자들의 실제 사상체질과의 관련성을 알아보았다.

## II. 研究方法

###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일본 도쿄 게이오대학 의학부 윤리위원

회(IRB)의 심사 승인을 받고 2010년 1월~2011년 2월 중순까지 게이오대학 한방센터 외래에서 치료를 받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연구대상자 모집을 하였다. 최초 373명의 연구 대상자들을 모집하였으며 그 중 체질진단이 가능하고 외래 진료기록부의 병력 및 치료내용을 확인 할 수 있었던 315명을 최종 연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 2. 연구방법

#### 1) 체질진단 및 병력조사

대상자들의 사상체질 진단을 하는데 있어 315명의 연구대상자들에게 일본어로 번역된 사상체질 설문지를 작성하게 한 후 한의사 전문의(사상체질과)의 환자 면담을 거쳐 사상체질 진단을 하였다.

활용된 사상체질 설문지는 김 등<sup>13</sup>이 개발하여 국내에서 활용중인 Sasang Constitution Questionnaire for Patients(SSCQ-P)를 일본어로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사상체질을 진단한 한의사 전문의는 약 20년의 임상경력을 가진 일본어가 가능한 사상체질 전문의로서, 연구대상자들이 작성한 설문지 답변내용을 확인한 후 환자와의 직접 면담을 통해 체형기상, 용모사기, 성질 재간, 병증약리, 소증 등을 참고하여 사상체질을 진단하였으며, 해당 대상자의 진료기록부의 병력 및 치료내용을 확인하였다.

#### 2) 처방 분석

연구대상자의 진료기록부에서 확인된 내용을 바탕으로 주소증, 현병력 등과 그에 따라 활용된 한약 엑기스제 처방을 조사하고, 이 처방들을 사상의학적인 관점으로 체질별 배속을 하였으며, 그에 따라 연구대상자의 실제 사상체질과 활용된 처방의 체질 배속에서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알아보았다. 대상자들에게 하나의 처방이 아닌 동시에 복수의 처방이 활용된 경우 가장 다빈도로 사용된 처방을 위주로 선별하였다.

### III. 研究結果

#### 1.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성별 분포는 남자가 73명, 여자가 242명 이었고 평균 연령은 48.2세, 평균 체중 53.9kg, 평균 신장 160.1cm 으로 나타났다. 혈액형에서는 A형 109명, B형 66명, O형 100명, AB형 39명으로 나타났으며, 결혼여부에서는 기혼 170명, 미혼 114명, 사별 17명, 기타 14명의 분포를 보였다. 교육정도에서는 대학교 졸업 이상이 203명으로 전체의 64.4%를 차지하였다.(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Taeyangin (N=3)	Soyangin (N=85)	Taeummin (N=90)	Socumin (N=137)	Total (N=315)
Sex(M/F)	1/2	20/65	35/55	17/120	73/242
Age(year)*	56.7	47.5	46.5	49.5	48.2
Weight(kg)*	52.7	51.5	64.5	48.5	53.9
Height(cm)*	163.0	159.7	163.2	158.4	160.1
Blood type					
A	1	28	30	50	109
B	1	18	21	26	66
O	1	25	28	46	100
AB	0	13	11	15	39
Don't know	0	1	0	0	1
Marriage					
Married	2	37	49	82	170
Single	1	35	35	43	114
Divorce	0	8	4	5	17
etc.	0	5	2	7	14
Education					
No	0	0	0	0	0
Elementary school	0	1	1	3	5
Middle school	0	4	3	3	10
High school	1	27	27	42	97
University	2	48	50	78	178
Graduate school	0	5	9	11	25

\* Values are mean.

Table 2. Sasang Constitution of Subjects

	Taeyangin	Soyangin	Taeummin	Socumin	Total
Male	1	20	35	17	73
Female	2	65	55	120	242
Total(%)	3(1.0)	85(27.0)	90(28.6)	137(43.5)	315(100)

#### 2. 대상자들의 사상체질 분포

전체 대상자 315명 가운데 태양인 3명(1.0%), 소양인 85명(27.0%), 태음인 90명(28.6%), 소음인이 137명(43.5%)으로 소음인의 비율이 다소 높았다.(Table 2)

#### 3. 처방의 사상체질 분류

대상자들에게 처방된 한약들은 일본의 제약회사에서 현재 생산중인 엑기스제이며 크게 상한론, 금궤요략 기원의 상한방과 화제국방, 의학정전, 만병회춘 등 기원의 후세방, 그 외 기타 경험방들로 구분이 된다. 총 147종의 의료용 엑기스제 가운데 본 연구에서 대상

자들에게 실제 활용된 처방은 총 80종이며 각 처방의 약재 구성 및 출전은 <별첨>과 같다.

처방들의 분류기준으로 동의수세보원, 구성약재의 군신좌사, 처방의 효능주치라는 3가지 기준을 삼았다. 동의수세보원에 수록되어 있는 처방과 그 변방의 경우 동의수세보원의 사상체질 분류를 우선적으로 따랐고, 동의수세보원에 수록되어 있지 않은 처방들의 경우 구성약재의 군신좌사에 따라 분류를 하되, 단순히 약재의 군신좌사만으로 분류를 하기 어려운 경우 그 처방의 효능주치에 따라 사상체질별로 배속을 하였다. 그리고 태양인 체질로의 배속은 처방들의 구성약재나 효능 등을 고려할 때 해당 내용이 거의 없음에 배제를 하였다.

위의 기준에 따라 분류한 결과 80종의 처방 가운데 소양인 처방으로의 분류가 30종, 태음인 처방으로의 분류가 7종, 소음인 처방으로의 분류가 43종이었다. (Table 3)

1) 동의수세보원에 따른 분류

80종의 엑기스제 가운데 『동의수세보원』<sup>14</sup>의 「張仲景 傷寒論中 少陰人病 經驗設方藥 二十三方」, 「宋元明 三代醫家 著述中 少陰人病 經驗行用要藥 十三方 巴豆藥 六方」, 「張仲景 傷寒論中 少陽人病 經驗設方藥 十方」, 「元明 二代醫家 著述中 少陽人病 經驗行用要藥 九方」, 「張仲景 傷寒論中 太陰人病 經驗設方藥 四方」, 「唐宋明 三代醫家 著述中 太陰人病 經驗行用要藥 九方」에 수록되어 있는 처방들의 경우는 원전에 근거하여 해당 체질로 배속을 하였고 이 처방들의 변방에 해당하는 처방들도 동일하게 분류하였다.

소양인 처방으로 백호가인삼탕, 오령산, 육미환, 저령탕이 있으며 백호가인삼탕은 동의수세보원에서 소양인 처방으로 분류된 백호탕의 변방이다.

태음인 처방으로 대시호탕이 있으며, 대시호탕거대황 처방의 경우 대황을 가하면서 시호, 황금이 주약

Table 3. The Classification of Herbal Formula

Sasang Constitution	Criteria	Herbal Formula
Soyangin (30*)	Original text† (4*)	백호가인삼탕 오령산 육미환 저령탕
	Ingredient (25*) (君臣佐使)	가미소오산 대시호탕거대황 마행감석탕 방풍통성산 사역산 소풍산 시령탕 시박탕 시합탕 시호가용골모려탕 시호계지건강탕 시호계지탕 신이청폐탕 심미패독탕 억간산 억간산간진피반하 온청음 용담사간탕 월비기출탕 인진오령산 조등산 청상방풍탕 질물강하탕 형개연교탕 황련해독탕
	Effect & Indication (1*)	우차신기환
Taecumin (7*)	Original text† (1*)	대시호탕
	Ingredient (5*) (君臣佐使)	갈근탕 갈근탕가천궁세신 맥문동탕 산조인탕 청심연자음
	Effect & Indication (1*)	길경탕
Soeumin (43*)	Original text† (18*)	계지가용골모려탕 계지가작약대황탕 계지작약탕 계지가출부탕 소견중탕 당귀건중탕 당귀사역가오수유생강탕 계지복령환 계지복령환가의이인 도핵승기탕 대승기탕 마황부자세신탕 반하사심탕 반하후박탕 보중익기탕 십전대보탕 인삼탕 향소산
	Ingredient (15*) (君臣佐使)	가미귀비탕 귀비탕 당귀음자 대견중탕 반하백출천마탕 방기황기탕 부자탕 사물탕 소청룡탕 안중산 여신산 오수유탕 육군자탕 자감초탕 죽여온담탕
	Effect & Indication (10*)	복령음 복령음합반하후박탕 영계출감탕 진무탕 온경탕 통도산 당귀작약산 궁귀교매탕 궁귀조혈음 팔미지황환

\*: the number of Herbal Formulas

†: 『Donguisusebowon』

**Table 4.** Practice Use of Herbal Formula according to the Sasang Constitution of Subjects.

Formula \ Subjects	Taeyangin	Soyangin	Taeumin	Soeumin
Soyangin	1	29	39	51
Taeumin	0	4	6	6
Soeumin	2	52	45	80
Total	3	85	90	137

제가 되므로 소양인 처방으로 분류 하였다.

소음인 처방으로는 계지탕의 변방이라 할 수 있는 계지가용골모려탕, 계지가작약대황탕, 계지작약탕, 계지가출부탕, 그리고 소견중탕과 그 변방인 당귀견중탕, 그리고 당귀사역탕의 변방인 당귀사역가오수유생강탕, 계지복령환과 그 변방인 계지복령환가의이인, 도핵승기탕이 해당되며 그 외에 대승기탕, 마황부자세신탕, 반하사심탕, 반하후박탕, 보중익기탕, 십전대보탕, 인삼탕, 향소산이 있다.(Table 3)

## 2) 군신좌사에 따른 분류

처방의 구성약제들 가운데 용량이 가장 많은 군약에 따라 분류를 하거나, 혹은 군신좌사의 구성에서 그 외 약제들이 특정체질로 집중이 되는 경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체질분류를 하였다.

소양인에서는 석고, 시호, 지황 등이 군약이 되는 경우가 많았고, 태음인에서는 갈근, 맥문동, 연자육 등이, 소음인에서는 계지, 반하, 인삼, 작약, 향부자, 황기, 감초 등이 군약에 해당되었다.(Table 3)

## 3) 효능·주치에 따른 분류

소양인 처방으로 분류한 우차신기환은 육미지황환에 계지, 부자를 가한 신기환<sup>1)</sup> 처방에 다시 우슬, 차전자를 가하여 溫陽利水하는 기존 효능에 利水消腫의 功效를 더한 처방이다. 利水降陰하는 효능의 약제들은 일반적으로 소양인 약제로 분류 가능한 점<sup>15)</sup>을

미루어 비슷한 공효의 우차신기환 역시 소양인 처방으로 분류를 하였다.

태음인 처방으로 분류한 길경탕은 소음인 약제인 감초와 태음인 약제인 길경의 구성으로, 성질이 偏涼하여 咽喉를 淸利하고 化痰止咳하는 효능<sup>16)</sup>으로 미루어 태음인 처방에 가깝다고 생각된다.

소음인 처방으로 분류한 복령음, 복령음합반하후박탕, 영계출감탕은 구성약제 중 소양인 약제인 복령의 용량이 가장 많으나 공통적으로 溫陽利水하여 水濕停滯로 인한 痰飲證을 치료하는 효능·주치 상 소음인 처방이라 할 수 있다. 온경탕<sup>17)</sup>은 溫經散寒 祛瘀養血하는 효능으로 충임맥의 虛寒으로 瘀血이 阻滯하여 생기는 증상을 치료하고, 통도산(通導散)<sup>12)</sup>은 瘀血 病態에 생긴 氣鬱 증상을 치료하는 방제이다. 당귀작약산은 氣滯血凝과 水濕으로 인한 부인의 腹中 諸疾患 및 痛症을 치료하는 처방<sup>17)</sup>이고, 궁귀고애탕은 補血緩痛, 止血安胎하는 효능을 바탕으로 충임허손으로 혈액을 統攝하지 못하여 생기는 出血과 胞阻를 치료하는 방제<sup>17)</sup>이며, 궁귀조혈음은 產後에 下血을 과다히 하여 생긴 증상을 치료하는 방제<sup>18)</sup>로 앞의 다섯 가지 처방들은 기존 한의학에서 血證 관련 病態에 활용되는 처방이다. 이러한 효능을 가지는 약제들은 일반적으로 소음인 약제로 분류<sup>19)</sup>할 수 있는 점을 미루어 같은 공효의 처방들 역시 소음인 처방으로 분류하였다. 팔미지황환은 소양인 처방인 육미지황환의 변방이나 계지, 부자를 가함으로써 腎陽을 溫補하는 효능에 중점을 두었다 보아 소음인 처방으로 분류하였다.(Table 3)

1) 일본에서 생산 중인 신기환 예기스제의 구성은 육미지황환(지황, 산수유, 산약, 택사, 복령, 목단피)에 계지, 부자를 가한 처방으로 『동의수세보원』 『張仲景 傷寒論中 少陽人病 經驗設方藥 十方』에서 육미지황환에 오미자를 가한 ‘신기환’ 처방과는 구성이 다소 다르다.

#### 4. 처방의 체질별 활용

80종의 처방을 사상체질별로 분류한 결과와 연구 대상자들의 실제 사상체질과의 관련성을 조사하였다. 연구대상자 가운데 태양인 3명 중 1명에게 소양인 처방이, 2명에게 소음인 처방이 활용되었다. 소양인 85명 중 29명에게 소양인 처방이, 4명에게 태음인 처방이, 52명에게 소음인 처방이 활용되었다. 태음인 90명 중 39명에게 소양인 처방이, 6명에게 태음인 처방이, 45명에게 소음인 처방이 활용되었다. 소음인 137명 중 51명에게 소양인 처방이, 6명에게 태음인 처방이, 80명에게는 소음인 처방이 활용되었다.

### IV. 考 察

연구 대상자의 사상체질 분포 결과는 전체 315명 가운데 태양인 3명(1.0%), 소양인 85명(27.0%), 태음인 90명(28.6%), 소음인 137명(43.5%)으로 소음인의 비율이 다소 높았다. 건강인 군까지 합친 일본인 498명을 대상으로 한 이전 연구<sup>20)</sup>에서도 소음인 비율(43.2%)이 다른 태양인(2.0%), 태음인(29.9%), 소양인(26.3%) 비율보다 높았다. 이는 한국과는 다른 일본 사회 분위기 영향일 가능성도 있으나 이후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일본인에게 활용된 80종의 한약 처방들을 사상의학적 시각에 따라 분류한 결과 소음인 처방으로의 분류가 43종, 소양인 처방으로의 분류가 30종, 태음인 처방으로의 분류가 7종으로 소음인 처방이 절반을 넘게 차지하였고 태음인 처방의 수가 가장 적었다. 이제마는 『동의수세보원』 「의원론」에서 '少陰人 病證藥理 張仲景 庶幾乎昭詳發明 而宋元明諸醫 盡乎昭詳發明, 少陽人 病證藥理 張仲景 半乎昭詳發明 而宋元明諸醫 庶幾乎昭詳發明, 太陰人 病證藥理 張仲景 略得影子 而宋元明諸醫 大半乎昭詳發明, 太陽人 病證藥理 朱震亨 略得影子 而本草 略有藥理' 으로 이제마 이전의 의가들의 사상체질 병증약리에 대한 공헌 정도를 밝히면서 소

음인에 대한 병증약리가 가장 잘 밝혀져 있었고 그 다음이 소양인, 태음인, 태양인 순이라 하였다. 일본에서 활용 중인 처방들은 대부분 상한론·금궤요략 기원의 상한방과 송원명 때의 화제국방·의학정전·만병회춘 등 기원의 후세방, 그 외 기타 경험방들로 나눌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 일본에서 실제 활용된 처방을 분석하였을 때 소음인 처방으로의 분류가 가장 많고, 태음인 처방으로의 분류가 가장 적다는 연구결과는 이제마가 「의원론」에서 밝힌 내용과 다르지 않다.

연구대상자들의 실제 사상체질과 처방들의 사상체질 분류와의 관계를 살펴봤을 때 특정 체질에게 해당 체질로 분류된 처방이 좀 더 집중적으로 활용된다는 경향성은 찾기 어려웠다.

### V. 結 論

1. 일본인 연구 대상자 315명 가운데 태양인 3명(1.0%), 소양인 85명(27.0%), 태음인 90명(28.6%), 소음인이 137명(43.5%)으로 소음인의 비율이 다소 높았다
2. 연구대상자에게 활용된 총 80종의 처방을 동의수세보원, 구성약재의 군신좌사, 처방의 효능주치 라는 3가지 기준에 따라 사상체질별로 분류를 하였다. 소양인 처방으로의 분류가 30종이었고 그 중 동의수세보원에 따른 분류가 4종, 구성약재의 군신좌사에 따른 분류가 25종, 처방의 효능주치에 따른 분류가 1종이었다. 태음인 처방으로의 분류가 7종이었고 그 중 동의수세보원에 따른 분류가 1종, 구성약재의 군신좌사에 따른 분류가 5종, 처방의 효능주치에 따른 분류가 1종이었다. 소음인 처방으로의 분류가 43종이었고 그 중 동의수세보원에 따른 분류가 18종, 구성약재의 군신좌사에 따른 분류가 15종, 처방의 효능주치에 따른 분류가 10종이었다. 소음인 처방으로의 분류가 가장 많았고 태음인 처방으로의 분류가 가장 적었다.
3. 연구대상자의 사상체질과 실제 활용된 처방의 체질 분류를 살펴보면 태양인 3명 중 1명에게 소양인 처

방이, 2명에게 소음인 처방이 활용되었다. 소양인 85명 중 29명에게 소양인 처방이, 4명에게 태음인 처방이, 52명에게 소음인 처방이 활용되었다. 태음인 90명 중 39명에게 소양인 처방이, 6명에게 태음인 처방이, 45명에게 소음인 처방이 활용되었다. 소음인 137명 중 51명에게 소양인 처방이, 6명에게 태음인 처방이, 80명에게는 소음인 처방이 활용되었다.

## VI. 參考文獻

1. Yoo JS, Hong SG, Choi EJ. Herbal Extracts Classification and Application in Terms of Sasang Constitution. *J Sasang Constitut Med.* 2010;22(4):40-48. (Korean)
2. Koh BH, Kim SH, Park BG, Jonathan D. Lavelle D.C, Marianne T. A study on the Sasang Constitutional Distribution Among the People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J Sasang Constitut Med.* 1999;11(2):119-150. (Korean)
3. Shin MR, Kim DR, Yoo JS. A Study on the Acoustic Characteristics of the American Adults Using Phonetic System for Sasang Constitution. *J Sasang Constitut Med.* 2007;19(3):75-88. (Korean)
4. Lee EJ, Yoo JH. A Study on Comparison of Responses to Short Form Sasang Classification Questionnaire for American (SF\_SSCQ-A) : Pilot test. *J Sasang Constitut Med.* 2009;21(1):63-78. (Korean)
5. Yoo JH, Lee EJ, Park JS, Hahn SK, Lee JH, Kho BH. Test-Retest Method on Short Form Sasang Classification Questionnaire for American (SF\_SSCQ-A) : Pilot Study. *J Sasang Constitut Med.* 2009;21(1):79-84. (Korean)
6. Song MY, Dymrna G, Kim JH, Chi SE. Association between Sasang Constitutions and Body Composition in African-American, Asian, and Caucasian Race Groups. *J Sasang Constitut Med.* 2003;15(2):124-128. (Korean)
7. Kim KS, Lee SK, Shin HK, Koh BH, Song IB, Lee EJ. A Study on the Reliability of the Questionnaire about Sasang Constitution Classification for Mongolians. *J Sasang Constitut Med.* 2006;18(2):96-112. (Korean)
8. Kim KS, Lee SK, Shin HK, Koh BH, Song IB, Lee EJ. A Study on the Validity of the Questionnaire about Sasang Constitution Classification for Mongolians. *J Sasang Constitut Med.* 2007;19(1):98-115. (Korean)
9. Kim KS, Kim SH, Lee GS, Yoo JH, Hwang MW, Lee JH, et al. Development of Mongolian's SDQ (SDQ-M) : Revision and Translation. *J Sasang Constitut Med.* 2007;19(3):99-125. (Korean)
10. Lee JH, Kim KS, Lee GS, Yoo JH, Moon YS, Luvsannyam B, et al. A Study on the Facial Morphologic Characteristics of Mongolian according to Sasangin : Pilot Study. *J Sasang Constitut Med.* 2007;19(3):62-74. (Korean)
11. Moon OR, Kim HY, Shin EY, Kim EY, Chun HR. A comparative Study on the Combined Oriental and Western Medicine(COWM) in Four Northeast Countries. *Korean J. of Health Policy & Administration.* 2003;13(2):1-22 (Korean)
12. Terasawa Katsutoshi(寺澤捷年). Kampo medicine learning from clinical cases. Seoul:Koonja. 2005:272, 260-367, 378
13. Kim JW, Jung SI, Choi MO, Kim KK, Lee EJ, Kim JY, et al. Study on Golden Standard for Sasang Constitution Diagnosis. *Korean J Oriental Physiology & Pathology.* 2005;19(6):1504-1512. (Korean)
14. National federation of department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colleges of oriental medicine. 2nd Ed. Seoul:Jipmoondang. 2006:671-676, 698-701, 714-716 (Korean).
15. Kim JY, Kim KY. A Research on the Classification of Herbal medicines based on the Sasang Constitution (Soyngin Part). *J Sasang Constitut Med.* 2001;13(3):1-7. (Korean)
16. National federation of formula study of oriental

- medicine. *Oriental Formula Study*. Seoul:Younglimsa. 2006;90, 419-421. (Korean)
17. The 49th graduating class of college of Korean medicine, Kyung-Hee Univ. Synopsis of Prescriptions of the Golden Chamber herbal pattern identification. Seoul: Jungdam. 2001;659-664, 653-658. (Korean)
18. Heo Joon. *Treasured Mirror of Eastern Medicine*. Seoul:Namsandang. 1995:986. (Korean)
19. Kim JY, Kim KY. A Research on the Classification of Herbal medicines based on the Sasang Constitution (Soeumin Part). *J Sasang Constitut Med*. 2001;13(1): 8-16. (Korean)
20. Ryu DH, Lee HM, Kim KK, Jeon SH, Kim JW. A Study on the Sasang Constitutional Distribution and the Type of Diseases and Symptoms in Japan. *J Sasang Constitut Med*. 2011;23(3):361-373. (Korean)



<별첨>

處方	出典	構成(g)													
加味歸脾湯	濟生方	人蔘 3	蒼朮 3	茯苓 3	酸棗仁 3	龍眼肉 3	柴胡 3	黃芪 2	當歸 2	山梔子 2	遠志 1.5	甘草 1	木香 1	大棗 1	生薑 1
加味逍遙散	和劑局方	柴胡 3	芍藥 3	當歸 3	茯苓 3	蒼朮 3	山梔子 2	牡丹皮 2	薄荷 1	甘草 1	生薑 1				
葛根湯	傷寒論, 金匱要略	葛根 8	麻黃 4	大棗 4	桂皮 3	芍藥 3	甘草 2	生薑 1							
葛根湯加川芎細辛	日本經驗方	葛根 8	麻黃 4	大棗 4	桂皮 3	芍藥 3	川芎 3	辛夷 3	甘草 2						
桂枝加龍骨牡蠣湯	金匱要略	桂皮 4	芍藥 4	大棗 4	牡蠣 3.5	龍骨 3.5	甘草 2	生薑 1							
桂枝加芍藥大黃湯	傷寒論	芍藥 7	桂皮 4.5	大棗 4.5	甘草 3	生薑 1	大黃*								
桂枝加芍藥湯	傷寒論	芍藥 7	桂皮 4.5	大棗 4.5	甘草 3	生薑 1									
桂枝加朮附湯	吉益東洞의 處方	蒼朮 5	桂皮 4.5	芍藥 4.5	大棗 4.5	甘草 3	生薑 1	附子*							
桂枝茯苓丸	金匱要略	桂皮 4	芍藥 4	桃仁 4	茯苓 4	牡丹皮 4									
桂枝茯苓丸加薏苡仁	日本經驗方	薏苡仁 10	桃仁 4	桂皮 4	茯苓 4	芍藥 4	牡丹皮 4								
芎歸膠艾湯	金匱要略	地黃 6	芍藥 4	當歸 4	艾葉 3	甘草 2	川芎 2	阿膠 1.5							
芎歸調血飲	醫宗金鑑	當歸 3	川芎 3	白朮 3	茯苓 3	地黃 3	陳皮 3	香附子 3	烏藥 3	乾薑 3	益母草 3	牡丹皮 3	甘草 3		
歸脾湯	濟生方	酸棗仁 3	龍眼肉 3	人蔘 3	白朮 3	茯苓 3	黃芪 2	當歸 2	遠志 1.5	大棗 1.5	甘草 1	木香 1	生薑 1		
桔梗湯	傷寒論, 金匱要略	甘草 3	桔梗 2												
當歸建中湯	金匱要略	芍藥 6	桂皮 4	大棗 4	當歸 4	甘草 2.5	生薑 1								
當歸芍藥散	傷寒論	大棗 5	桂皮 3	芍藥 3	當歸 3	細辛 3	木通 2	甘草 2	吳茱萸 2	生薑 1					
當歸飲子	濟生方	當歸 5	地黃 4	芍藥 3	川芎 3	防風 3	蒺藜子 3	何首烏 2	黃芪 1.5	荊芥 1.5	甘草 1				
當歸芍藥散	金匱要略	澤瀉 6	芍藥 5	蒼朮 4	茯苓 4	當歸 3	川芎 3								
大建中湯	金匱要略	人蔘 3	山椒 2.5	乾薑 1.5											
大承氣湯	傷寒論, 金匱要略	厚朴 8	芒硝 5	枳實 4	大黃*										
大柴胡湯	傷寒論, 金匱要略	柴胡 8	半夏 6	芍藥 3	黃芩 3	大棗 3	枳實 3	生薑 1	大黃*						
大柴胡湯去大黃	日本經驗方	柴胡 8	半夏 6	芍藥 3	黃芩 3	大棗 3	枳實 3	生薑 1							
桃核承氣湯	傷寒論	桃仁 5	桂皮 4	芒硝 3	甘草 2	大黃*									
麻杏甘石湯	傷寒論	石膏 10	杏仁 4.5	麻黃 4.5	甘草 2.5										
麻黃附子細辛湯	傷寒論	麻黃 5	細辛 5	附子*											
麥門冬湯	金匱要略	麥門冬 10	半夏 5	粳米 5	大棗 3	甘草 2	人蔘 2								
半夏白朮天麻湯	脾胃論	陳皮 3	半夏 3	麥芽 3	茯苓 2	黃芪 2	澤瀉 2	人蔘 2	天麻 2	白朮 1.5	神麩 1.5	黃柏 1	乾薑 1	生薑 0.5	

處方	出典	構成(g)																					
半夏瀉心湯	傷寒論, 金匱要略	半夏 7	黃芩 3	大棗 3	人參 3	甘草 2.5	乾薑 1.5	黃連 1															
半夏厚朴湯	金匱要略	半夏 8	茯苓 5	厚朴 3	蘇葉 2	生薑 1																	
防己黃芪湯	金匱要略	黃芪 5	防己 4	蒼朮 3	大棗 3	甘草 2	生薑 1																
防風通聖散	宣明論	滑石 5	石膏 3	黃芩 2.5	桔梗 2.5	白朮 2	甘草 2	荊芥 2	山梔子 2	大黃 1.5	芍藥 1.2	川芎 1.2	當歸 1.2	薄荷 1.2	防風 1.2	麻黃 1.2	連翹 1.2	芒硝 1.2	生薑 1				
白虎加入參湯	傷寒論, 金匱要略	石膏 15	粳米 9	知母 5	人參 3	甘草 2																	
補中益氣湯	辨惑論	黃芪 4	蒼朮 4	人參 4	當歸 4	柴胡 2	升麻 2	大棗 2	陳皮 2	甘草 1.5	生薑 1												
茯苓飲	金匱要略	茯苓 5	蒼朮 4	人參 4	陳皮 3.5	枳實 3	生薑 1																
茯苓飲合半夏厚朴湯	日本經驗方	半夏 8	茯苓 5	蒼朮 4	人參 4	陳皮 3.5	枳實 3	厚朴 3	蘇葉 2	生薑 1													
附子湯	傷寒論	白朮 5	茯苓 5	芍藥 5	人參 3	附子 1																	
四物湯	和劑局方	地黃 5	芍藥 5	川芎 5	當歸 5																		
四逆散	傷寒論	柴胡 5	芍藥 5	枳實 4	甘草 3																		
酸棗仁湯	金匱要略	酸棗仁 15	茯苓 4	川芎 3	知母 3	甘草 1																	
小建中湯	傷寒論, 金匱要略	膠飴 20	芍藥 7	桂皮 4	大棗 4	甘草 2.5	生薑 1																
小青龍湯	傷寒論, 金匱要略	半夏 6	甘草 3	桂皮 3	五味子 3	細辛 3	芍藥 3	麻黃 3	乾薑 1.5														
消風散	和劑局方	石膏 3	地黃 3	當歸 3	蒼朮 2	防風 2	木通 2	牛蒡子 2	胡麻 1.5	知母 1.5	苦參 1	荊芥 1	蟬退 1	甘草 1									
柴苓湯	世醫得效方	柴胡 7	澤瀉 4	半夏 4	豬苓 4	茯苓 3	白朮 3	人參 2.5	大棗 2.5	黃芩 2.5	桂皮 2.5	甘草 2	生薑 1										
柴朴湯	日本經驗方	柴胡 7	半夏 5	茯苓 5	黃芩 3	厚朴 3	大棗 3	人參 3	甘草 2	蘇葉 2	生薑 1												
柴陷湯	日本經驗方	柴胡 8	半夏 8	黃芩 3	大棗 3	人參 3	瓜蒌仁 3	甘草 3	黃連 1	生薑 1													
柴胡加龍骨牡蠣湯	傷寒論	柴胡 7	半夏 5	黃芩 3	桂皮 3	牡蠣 3	茯苓 3	大棗 3	人參 3	龍骨 3	生薑 1	大黃*											
柴胡桂枝乾薑湯	傷寒論	柴胡 8	瓜蒌根 4	黃芩 3	桂皮 3	牡蠣 3	甘草 2	乾薑 1.5															
柴胡桂枝湯	傷寒論, 金匱要略	柴胡 6	半夏 4.5	人參 2.5	黃芩 2.5	桂皮 2.5	芍藥 2.5	大棗 2.5	甘草 1.5	生薑 1													
辛夷清肺湯	外科正宗	石膏 5	麥門冬 5	黃芩 3	知母 3	百合 3	山梔子 3	辛夷 2	枇杷葉 2	升麻 1													
十味敗毒湯	春林軒藏方	茯苓 4	柴胡 3.5	桔梗 3.5	川芎 3.5	防風 3.5	檳榔 3.5	甘草 2	荊芥 2	獨活 2	生薑 1												
十全大補湯	和劑局方	黃芪 3	桂皮 3	地黃 3	芍藥 3	川芎 3	當歸 3	人參 3	茯苓 3	蒼朮 3	甘草 1.5												
安中散	和劑局方	桂枝 5	玄胡索 4	牡蠣 4	茴香 2	甘草 1.5	縮砂 1.5	良薑 0.7															
抑肝散加陳皮半夏	日本經驗方	半夏 5	蒼朮 4	茯苓 4	當歸 4	釣鉤藤 4	川芎 3	陳皮 3	柴胡 3	甘草 1.5													
抑肝散	薛氏醫案	蒼朮 4	茯苓 4	川芎 3	當歸 3	釣鉤藤 3	柴胡 2	甘草 1.5															
如神散	淺田家方	香附子 3	川芎 3	蒼朮 3	當歸 3	黃芩 3	桂皮 3	檳榔子 3	黃連 2	木香 2	人參 1.5	甘草 1.5	丁香 1.5	大黃*									

處方	出典	構成(g)												
苓桂朮甘湯	金匱要略	茯苓 8	桂皮 5	蒼朮 4	甘草 3									
五苓散	傷寒論	澤瀉 6	猪苓 4.5	茯苓 4.5	蒼朮 4.5	桂皮 3								
吳茱萸湯	傷寒論	吳茱萸 5	人參 3	大棗 3	生薑 1									
溫經湯	金匱要略	麥門冬 5	半夏 4	當歸 3	甘草 2	桂皮 2	芍藥 2	川芎 2	人參 2	牡丹皮 2	吳茱萸 2	阿膠 2.5	生薑 1	
溫清飲	萬病回春	地黃 4	芍藥 4	川芎 4	當歸 4	黃芩 3	山梔子 2	黃柏 1.5	黃連 1.5					
龍膽瀉肝湯	薛氏醫案	地黃 5	當歸 5	木通 5	黃芩 3	車前子 3	澤瀉 3	甘草 1.5	山梔子 1.5	龍膽 1.5				
牛車腎氣丸	濟生方	地黃 5	牛膝 3	山茱萸 3	山藥 3	澤瀉 3	茯苓 3	牡丹皮 3	車前子 2	桂皮 1	附子*			
越婢加朮湯	金匱要略	石膏 8	麻黃 6	蒼朮 4	大棗 3	甘草 2	生薑 1							
六君子湯	醫學正傳	人參 4	半夏 4	茯苓 4	陳皮 4	生薑 4	蒼朮 4	大棗 1	甘草 1					
六味丸	小兒藥證直訣	地黃 8	山茱萸 4	山藥 4	澤瀉 3	茯苓 3	牡丹皮 3							
人參湯	傷寒論, 金匱要略	蒼朮 4.5	人參 4.5	甘草 4	乾薑 1.5									
茵陳五苓散	金匱要略	澤瀉 6	茵陳蒿 6	蒼朮 4.5	猪苓 4.5	茯苓 4.5	桂皮 3							
炙甘草湯	傷寒論, 金匱要略	地黃 5	麥門冬 5	炙甘草 4	桂皮 3	大棗 3	麻子仁 3	人參 3	阿膠 1.5	生薑 1				
猪苓湯	傷寒論, 金匱要略	地黃 3	芍藥 3	川芎 3	澤瀉 3	猪苓 3	當歸 3	茯苓 3	阿膠 3	滑石 3				
釣藤散	普濟本事方	石膏 5	陳皮 3	麥門冬 3	半夏 3	茯苓 3	人參 3	防風 3	釣鉤藤 3	菊花 3	甘草 1	生薑 1		
竹茹溫膽湯	萬病回春	半夏 5	麥門冬 4	柴胡 3	竹茹 3	茯苓 3	桔梗 2	枳實 2	香附子 2	陳皮 2	黃連 1	人參 1	甘草 1, 生薑 1	
真武湯	傷寒論	茯苓 6	芍藥 5	蒼朮 4	生薑 1	附子*								
清上防風湯	萬病回春	連翹 2.5	黃芩 2.5	桔梗 2.5	山梔子 2.5	川芎 2.5	防風 2.5	白芷 2.5	黃連 1	枳實 1	荊芥 1	薄荷 1	甘草 1	
清心蓮子飲	和劑局方	蓮肉 4	麥門冬 4	茯苓 4	黃芩 3	車前子 3	人參 3	黃芪 2	地骨皮 2	甘草 1.5				
七物降下湯	修琴堂經驗方	釣鉤藤 5	當歸 4	芍藥 4	黃芪 4	地黃 4	川芎 4	黃柏 2						
通導散	萬病回春	芒硝 4	枳實 3	當歸 3	甘草 2	紅花 2	厚朴 2	陳皮 2	木通 2	蘇木 2	大黃*			
八味地黃丸	金匱要略	地黃 6	山茱萸 3.5	山藥 3.5	澤瀉 3	茯苓 3	牡丹皮 3	桂皮 1	附子*					
香蘇散	和劑局方	香附子 4	蘇葉 2	陳皮 2	甘草 1.5	生薑 1								
荊芥連翹湯	一貫堂醫學大綱	柴胡 2	白芷 2	黃芩 1.5	黃柏 1.5	黃連 1.5	桔梗 1.5	枳實 1.5	荊芥 1.5	山梔子 1.5	地黃 1.5	芍藥 1.5	川芎 1.5, 當歸 1.5, 薄荷 1.5, 防風 1.5, 連翹 1.5, 甘草 1.5	
黃連解毒湯	外臺雜擾	黃連 3	黃芩 2	山梔子 2	黃柏 2									

\*: 대황과 부자는 증상에 따라 적당한 양으로 사용한다.  
처방의 출전 및 구성은 『증례로 배우는 동의의학』<sup>12)</sup>을 따름.